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thers' Playfulness and Play Participation
on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박하얀¹ 배선영²

Hayan Park¹ Sunyoung Pae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thers' playfulness and play participation on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325 preschoolers and their fathers. The survey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fathers' playfulness, fathers' average level of play participation as well as playtime with their children and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fathers' playfulness and play participa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athers' weekly working hour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heerfulness of the sub-factors of fathers' playfulness was, the higher the sociability of sub-factors of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was. The amount of fathers' play time with children as well as the average level of play participation, which is the qualitative aspect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was found to affect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and the three sub-factors of competence.

Conclusion/Implications: The findings implied that fathers' active play participation with children is important and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order for fathers to have time to play with their children.

key words fathers' playfulness, fathers' play participation,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 본 논문은 2018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² 교신저자

배화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e-mail : 10146@baewha.ac.kr)

I. 서론

유아는 성장하면서 가정을 넘어 가족과는 매우 다른 형태인 거의 동일한 연령지위를 갖는 성원으로 구성된 또래집단과의 접촉이 증가하게 된다(이기숙, 1991). 또래와의 접촉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또래와의 자유롭고 동등한 관계는 새로운 종류의 탐색을

허용하며 유아는 또래집단 속에서 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현실에 맞게 보다 성숙하게 변화시키며 발달한다(McCay & Keyes,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 습득이나 탈중심화 및 자아개념 형성에 기여하며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다(Ellis, Rogoff, & Crown, 1981). 유아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기관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또래관계 속의 사회적 협상, 토론, 갈등을 통해 타인의 생각, 감정,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게 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6). 이처럼 유아에게 있어 발달적 변화의 동력인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은 또래와의 다양한 관계 형성 경험을 통해서 뿐 아니라(단현국, 2011) 유아가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부모의 영향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부모의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송은혜, 2008; 심윤희, 2011), 부모의 적극적인 놀이참여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윤재, 2017; 윤지은, 2015; 임정빈, 2017; Russell & Saebel, 1997).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성현, 배율미, 2016),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성, 김경은, 2017).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이라 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뿐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손승희, 이은혜, 2004).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박주희, 이은혜, 2001; 손승희, 이은혜, 2004; 유란희, 김선희, 2017; 정지나, 이영, 2006), 양육태도(이진희, 2011), 양육효능감(안라리, 김정아, 2005) 등 유아의 어머니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역할로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강민성, 김경은, 2017; 최미숙, 송순옥, 2014), 양육태도(김성현, 배율미, 2016; 이은숙, 박형신, 2017), 부모역할지능(조은정, 박형신, 2015) 등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아버지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졌을 뿐 어머니 관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에 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양육행동 관련변인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책임은 그동안 상당 부분 어머니에게 있었다(김종석, 2011). 사회, 경제 및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과 영향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따라서 아버지 관련 변인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버지의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있어 주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참여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여행, 관람,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실제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

은 돌봄과 관련된 일반적 양육참여보다는 놀이상황과 관련된 상호작용적인 양육참여를 더 많이 하며(김은화, 2011), 일반적 자녀양육참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할 때 아버지의 역할과 영향력 또한 어머니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놀이성이 더 풍부하고 새로운 놀이를 더 많이 시도하는 특성이 있으며(Lamb, 2010), 유아들은 어머니를 자신을 달래주고 신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보다 탐색적이고 재미 있는 놀이 상대자로 생각한다(Lamb, 1986).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양육과 보호를 위해 보내는 반면 아버지는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놀이로 보낸다고 하였고, 아버지는 신체놀이, 자극 중심의 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이의 형태 및 수준에서 어머니와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 참여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도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여윤재, 2017; 윤지은, 2015; 임정빈, 2017)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신체적 돌봄이 주로 강조되는 영아기에는 자녀와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이 양육과 관련된 것으로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만 4, 5세 시기에는 유아-아버지 간 상호작용이 놀이의 형태를 통해 이전보다 현저하게 활발해지며 부성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된다(이영환, 2001; Bowen & Miller, 1980; Lamb, 2010). 또한 이 시기 유아는 이전보다 또래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사회성 발달의 주요한 과제가 또래관계이고(Waters & Sroufe, 1983),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므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아버지의 누적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uber(1979)는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 시 표현하는 행동과 자녀의 활동적인 놀이 간에 관련성이 있으며 부모 중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고 하였고, Parke(1981)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Ishii-Kuntz(1994)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더 효과적이고 애정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을 한다고 보고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갖는 시간의 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양 또한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아버지의 자녀 놀이참여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놀이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해온 평정 척도들은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정도를 질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 자체에 대한 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 놀이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놀이참여도를 놀이참여수준과 놀이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아버지가 실제 자녀 놀이참여 시 구체적으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놀이참여 뿐만 아니라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성격특성 중 하나인 부모의 놀이성이 유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uner, 1991; Lieberman, 1965; Rogers, 1988). 부모의 놀이성(playfulness)은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성격특성으로(Barnett, 1990) 놀이 활동에 참여하려는 성향 또는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한다(Bozionelos & Bozionelos, 1999). 성인을 대상으로 한 놀이성 연구에 따르면 놀이성은 유쾌함, 즐거움, 자유로움 등을 포함하는 성격특성으로 놀이성이 높은 성인은 일의 수행능력이 높고 긍정

적인 행동을 하며, 대인관계,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Glynn & Webster, 1992; Schaefer & Greenberg, 1997). Erikson(1977)은 놀이성이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으로 놀이성이 소실되면 삶이 침체되거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놀이성에 관련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성인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성인기에는 놀이가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 때문에(Csikszentmihalyi, 1979)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성인의 놀이성에 대한 연구는 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인의 놀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면서(Glynn & Webster, 1992; Schaefer & Greenberg, 1997) 국내에서도 최근에 주목을 받으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영희, 2013; 김지애, 2015; 김형재, 최지현, 2016; 우수경, 2013;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4; 한지현, 이진숙, 2015).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송은혜, 2008; 심윤희, 2011), 자기조절능력(황지현, 2012), 놀이성(김기순, 2002; 김종석, 2011; 이미선, 2011) 등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유아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는 유아와 놀이 상호작용 시 함께 수반되어 나타나게 되므로(송은혜, 2008; De Haan, Prinzie, & Dekovic, 2009),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은 자녀양육에 대해 어머니와 구별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면 아버지-자녀 간 놀이에서 아버지 관련 변인들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버지 고유의 놀이적인 성격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아버지의 놀이참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2017년 OECD 회원국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제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8).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과 함께 긴 근무로 인한 피로감 또한 자녀 놀이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본인의 놀이성을 발휘하며 자녀와 놀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직업 환경, 즉 근무시간과 직업의 유형 등 직업적 특성을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 5세 유아와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근무시간과 직업 유형 등 직업적 특성에 따라 놀이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 관련 변인들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놀이 상대자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버지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만 4, 5세반 유아 325명(남아 164명, 여아 161명; 만 4세반 185명, 만 5세반 140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은 66.85개월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와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25)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유아			
연령	만 4세반	185	56.9
	만 5세반	140	43.1
성별	남	164	50.5
	여	161	49.5
출생 순위	외동아	96	29.5
	첫째	89	27.2
	둘째	118	36.1
	셋째	22	6.7
아버지			
연령	31~35세	32	9.8
	36~40세	144	44.3
	41~45세	120	36.9
	46세 이상	29	8.9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	16	4.9
	전문대 졸	48	14.8
	대학교 졸	217	66.8
	대학원 이상	44	13.5
직업	행정·관리직	69	21.2
	전문직	106	32.6
	일반 사무직	129	39.7
	생산·서비스직	15	4.6
	기타	6	1.8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26	8.0
	300만원 ~ 400만원 미만	80	24.6
	400만원 ~ 500만원 미만	145	44.6
	500만원 ~ 600만원 미만	52	16.0
	600만원 이상	22	6.7
자녀수	1명	96	29.5
	2명	198	60.9
	3명	31	9.5

2. 연구 도구

1)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

아버지의 직업유형과 주중 근무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은 아버지의 인구학적 배경을 묻는 기초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아버지의 주중 근무시간은 아버지가 직접 시간을 숫자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과 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아버지의 놀이성

아버지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lynn과 Webster(1992)가 개발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 APS)’를 박현숙(2003)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개 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쾌활성은 활기 있으며 명랑하고 밝고 개방적인 성향이며, 상상력은 감정이 풍부하고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흥성은 천진하고 표현적이며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고, 기발성은 모험적이며 창의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척도의 각 문항은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쾌활성은 ‘활기찬-소극적’, 상상력은 ‘정서적인-지적인’, 즉흥성은 ‘표현적-자기 통제적’, 기발성은 ‘창의적-사실적’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쌍의 형용사 중 자신과 더 가까운 쪽에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소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형용사 쌍의 왼쪽에 위치하는 형용사 문항이 더 높은 점수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22~1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하위요인별로는 쾌활성이 .94, 상상력이 .72, 즉흥성이 .81, 기발성이 .78이었다.

3)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1)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을 질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기 위해 Stevenson, Leavitt, Thompson 그리고 Roach(1988)의 놀이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단계를 기초로 원희영(1997)이 제작한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구성놀이참여, 신체놀이참여, 교수놀이참여, 게임놀이참여, 역할놀이참여, 기능놀이참여의 6개 하위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아버지가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해당 영역의 놀이참여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고, 하위영역별로는 구성놀이 .88, 신체놀이 .73, 교수놀이 .86, 게임놀이 .67, 역할놀이 .92, 기능놀이 .84였다.

(2)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원희영, 1997; 윤상인, 2011)를 기초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과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을 아버지가 직접 시간을 숫자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평일은 특별한 일(가족행사, 출장 등)이 없었던 일주일 평일 간,

주말은 특별한 일이 없었던 주말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텔레비전 보기, 식사하기, 낮잠 자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자녀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은 실내·외 놀이, 책보기 등과 같이 자녀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반응해주며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응답 시 함께하는 시간과 놀이하는 시간을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둘을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의 합을 ‘놀이참여시간’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교사 평정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3개 하위요인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교성은 유아가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며, 여러 다른 유아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친사회성은 유아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다른 유아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도성은 또래집단에서 놀이나 활동들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으로, 각 하위요인별로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해당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당 또래 유능성 점수의 범위는 15~75점이고, 본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사교성 .95, 친사회성 .89, 주도성 .93이었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아버지용 놀이성과 놀이참여도 질문지, 교사가 평정하는 유아의 또래유능성 척도지의 적절성과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 4, 5세 유아를 둔 아버지 15명과 만 4, 5세 유아의 담당교사 4명에게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의미전달이 어려운 문항이나 평정하기에 부적합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한 명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10~15분 정도, 교사가 한 유아를 평정하는 데 5~1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지역에 위치한 종일제 유치원·어린이집 11개소의 만 4, 5세반에 재원 중인 유아 325명(남아 164명, 여아 161명; 만 4세반 185명, 만 5세반 140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 기관의 원장과 유아반 담임교사에게 연구 목적, 실시 기간과 일

정, 실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아버지용 질문지는 기관을 통해 유아의 가정에 배부한 뒤 회수하였다.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 유아를 3개월 이상 담당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자유놀이 시간을 포함한 기관에서의 하루일과를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는 아버지용 질문지와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총 492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331부가 회수되었고(67.2% 회수율), 이 중 응답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질문지 4부와 비취업 아버지의 질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32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 첫째,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둘째, 아버지의 근무시간과 직업 유형에 따른 놀이참여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 또래유능성 총점의 평균은 48.57($SD = 11.64$)로 나타났으며, 유아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별 문항평균은 사교성($M = 3.31, SD = 4.38$), 친사회성($M = 3.27, SD = 3.94$), 주도성($M = 3.14, SD = 4.51$)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놀이성의 하위요인별 문항평균은 쾌활성($M = 4.60, SD = 1.24$), 상상력($M = 4.50, SD = 1.20$), 기발성($M = 4.05, SD = 1.41$), 즉흥성($M = 3.76, SD = 1.15$)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를 놀이참여수준과 놀이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놀이참여수준의 평균은 3.16($SD = .54$),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주당 평균 4.71($SD = 3.36$)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 = 325)

측정 변인	가능점수범위	평균 (SD)	문항평균 (SD)
유아 또래유능성			
사교성	5~25	16.56 (4.38)	3.31 (.87)
친사회성	5~25	16.33 (3.94)	3.27 (.79)
주도성	5~25	15.68 (4.51)	3.14 (.90)
전체	15~75	48.57 (11.63)	3.24 (.78)

표 2. 계속

측정 변인	가능점수범위	평균 (SD)	문항평균 (SD)
아버지 놀이성			
쾌활성	10~70	45.98 (12.37)	4.60 (1.24)
상상력	3~21	13.49 (3.60)	4.50 (1.20)
즉흥성	6~42	22.53 (6.88)	3.76 (1.15)
기발성	3~21	12.15 (4.22)	4.05 (1.41)
전체	22~154	89.51 (23.40)	4.08 (1.23)
아버지놀이참여도			
놀이참여수준	1~4	3.16 (.54)	-
놀이참여시간(시간/주)	-	4.71 (3.36)	-

1.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놀이참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놀이참여도를 놀이 참여수준과 놀이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을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아버지 놀이참여의 평균수준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F = 3.12, p < .05$), 사후검정에서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인 아버지가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인 아버지가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인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놀이 내용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놀이참여수준의 차이 (N = 325)

변인	구분	n	M (SD)	F	Scheffé
아버지 직업					
행정·관리직		69	3.12 (.50)	1.88	
전문직		106	3.15 (.60)		
일반 사무직		129	3.20 (.51)		
생산·서비스직		15	3.25 (.42)		
기타		6	2.62 (.72)		
아버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20	3.21 (.45)	3.12*	
40시간~50시간 미만 _a		161	3.24 (.46)		
50시간~60시간 미만 _b		80	3.00 (.61)		a > b
60시간~70시간 미만		43	3.18 (.52)		
70시간 이상		21	3.03 (.83)		

* $p < .05$.

다음으로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놀이참여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 5.41, p < .001$),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주당 40시간 미만은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아버지가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인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종류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 평균수준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놀이참여시간의 차이 (N = 325)

변인	구분	n	M (SD)	F	Scheffé
아버지 직업	행정·관리직	69	4.06 (2.86)	.88	
	전문직	106	4.79 (3.34)		
	일반 사무직	129	4.98 (3.59)		
	생산·서비스직	15	4.80 (3.10)		
	기타	6	4.70 (4.29)		
아버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_a	20	7.25 (2.79)	5.41***	a > b,c
	40시간~50시간 미만	161	5.02 (3.17)		
	50시간~60시간 미만 _b	80	3.75 (2.78)		
	60시간~70시간 미만	43	4.52 (4.17)		
	70시간 이상 _c	21	3.98 (4.01)		

*** $p < .001$.

2.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아버지 놀이성과 놀이참여도,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아버지 놀이성과 놀이참여도, 유아 또래유능성 간의 상관계수 (N = 325)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유아 또래 유능성											
사교성 (1)	-										
친사회성 (2)	.81***	-									
주도성 (3)	.78***	.62***	-								
전체 (4)	.95***	.88***	.89***	-							

표 5. 계속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아버지 놀이성											
쾌활성 (5)	.10	.19*	.07	.10	-						
상상력 (6)	.00	.10	-.00	.04	.74***	-					
즉흥성 (7)	-.05	.01	.02	-.01	.55***	.57***	-				
기발성 (8)	-.02	.06	.01	.02	.67***	.73***	.63***	-			
전체 (9)	.10	.18**	.07	.13*	.78***	.70***	.62***	.66***	-		
놀이참여도											
놀이참여수준 (10)	.23***	.22***	.21***	.24***	.39***	.35***	.17**	.31***	.46***	-	
놀이참여시간 (11)	.31***	.28***	.29***	.33***	.42***	.39***	.38***	.36***	.54***	.51***	-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놀이성의 총점은 유아 또래유능성 총점($r = .13, p < .05$), 유아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r = .1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버지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쾌활성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r = .19,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의 성격이 활기 있고 개방적인 성향과 자녀가 다른 유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놀이참여도를 놀이참여수준과 놀이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유아 또래유능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놀이참여수준은 유아 또래유능성 총점($r = .24, p < .001$), 유아 또래유능성의 3개 하위요인인 사교성($r = .23, p < .001$), 친사회성($r = .22, p < .001$), 주도성($r = .2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 또한 유아 또래유능성 총점($r = .33, p < .001$), 사교성($r = .31, p < .001$), 친사회성($r = .28, p < .001$), 주도성($r = .29, p < .001$)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놀이참여시간은 자녀가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이며 주도적인 또래유능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 놀이성의 각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위험을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인의 자기상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4~2.18로 2에 가까운 수치이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며, VIF지수가 10미만인 1.76~2.85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사교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 p < .01$). 즉, 아버지의 성격특성이 활기 있으며 명랑하고 밝고 개방적인 성향일수록 자녀가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며 다른 유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N = 325)

변인	유아의 또래유능성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전체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아버지 놀이성												
쾌활성	.18	.26	3.00**	.06	.10	1.12	.12	.16	1.85	.12	.19	2.21*
상상력	-.05	-.07	-.77	.06	.09	.93	-.08	-.11	-1.12	-.03	-.04	-.41
즉흥성	-.08	-.10	-1.38	-.05	-.08	-1.06	-.00	.00	-.01	-.04	-.06	-.88
기발성	-.05	-.08	-.92	-.01	-.02	-.21	-.01	-.02	-.23	-.02	-.04	-.50
R ²	.03			.02			.01			.02		
F	2.60*			1.39			.89			1.42		

*p < .05, **p < .01.

3.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놀이참여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에서 유아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버지 놀이참여수준,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 종속변인의 자기상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 1.79~2.05로 2에 가까운 수치이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며, VIF지수가 10미만인 1.29~2.71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7.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N = 325)

변인	유아의 또래유능성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전체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아버지 놀이참여수준	.37	.23	4.27***	.32	.22	4.13***	.34	.21	3.79***	.35	.24	4.50***
R ²	.05			.05			.04			.06		
F	18.27***			17.02***			14.39***			20.25***		
아버지 놀이참여시간	.08	.31	5.77***	.07	.28	5.32***	.08	.29	5.51***	.08	.33	6.17***
R ²	.09			.08			.09			.11		
F	33.24***			28.34***			30.36***			38.04***		

***p < .001.

표 7과 같이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 전체(β = .24,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은 유아 또래유능성의 3개 하

위요인인 사교성($\beta = .23, p < .001$)과 친사회성($\beta = .22, p < .001$), 주도성($\beta = .21, p < .001$)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 전체($\beta = .33,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였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은 사교성($\beta = .31, p < .001$), 친사회성($\beta = .28, p < .001$), 주도성($\beta = .29, p < .001$)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각각 9%, 8%, 9%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 놀이참여도의 질적 측면인 놀이참여수준과 양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놀이참여시간은 유아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과 또래유능성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4, 5세 유아와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직업 유형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일 평균 근무 시간 8~10시간 미만인 아버지가 10~12시간인 아버지보다 자녀와 놀이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아버지가 10~12시간 미만인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양육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김세현, 2011)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근로시간에 따라 자녀와의 놀이에서 보이는 수준과 놀이시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여건 개선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 확보와 그로 인해 놀이의 수준이 향상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일상 근무시간의 적정 시간 유지, 아버지의 육아 관련 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녀와 놀이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아버지 놀이성 하위요인인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사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성격이 쾌활하고 명랑하며 밝고 개방적인 성향일수록 유아 자녀가 다른 유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쾌하게 놀이를 즐기는 아버지의 성격특성이 자녀와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유아가 또래에 대해 평가하고 또래로부터 반응을 유발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긍정적이고 유쾌한 성격특성인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송은혜, 2008), 아버지가 적극적이고 유쾌한 성격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발달을 가져온

다고 보고한 연구(심윤희, 2011)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아버지 놀이성 하위요인 중 쾌활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또래의 접근에 쉽게 반응하고 협동적 성향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발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김종석, 2011)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 성격특성으로서의 놀이성이 아버지의 태도에 영향을 주어 삶을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밝고 쾌활한 성격특성은 아버지-자녀 간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장면에서 유아에게 영향을 주어 유아가 놀이를 할 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열중하며 기운차고 즐거워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김종석, 2011). 교사가 지각하는 유아 또래유능성에 대한 연구(단현국, 2011)에 따르면 교사는 활동참여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아와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며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아버지의 쾌활한 놀이적인 성향이 유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참여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를 질적인 측면의 놀이참여수준과 양적인 측면의 놀이참여시간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또래유능성의 3개 하위요인인 사교성과 친사회성, 주도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 적극적인 수준으로 참여할수록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맺고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또래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아버지의 적극적인 놀이참여 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한 자기중심성 사고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며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아버지와 유아 간 적극적인 놀이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것은 유아의 또래유능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김보민, 2006)와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원희영, 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놀이를 안내하고 놀이 상대로서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했을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와 유아가 함께 놀이하면서 문제 상황에 당면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과 의견을 조정하며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아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Parke, MacDonald, Beitel, & Bhavnagri, 1988). 즉, 아버지가 유아와 단순히 함께 있는 소극적인 형태에 그치지 않고 놀이상대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유아는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해볼 수 있고 이는 유아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놀이하러 가는 양이 많을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사교성과 친사회성, 주도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놀이참여시간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최진주, 2004), 아버지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수준 뿐만 아니라 아버

지와 유아가 함께 놀이하는 시간 또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임정란,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현대의 아버지는 바쁜 직장업무와 과중한 근로시간,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 및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아버지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시간과 놀이 수준은 차이가 없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적은 집단에서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의 양이 더 많았고 놀이의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일상에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요일 기업의 조기퇴근 의무화나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도입이 보여주지 식이나 소수의 선택이 아닌 영유아를 둔 모든 아버지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유아가 태어나서 만나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가족 내에서 어머니와 함께 중요한 주양육자이다. 어머니의 역할을 지지해 줄 수도 있고 어머니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어머니와 다른 방식으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elsky, 1980; Lamb, 1986; Lamb, Frodi, Frodi, & Hwang, 1982).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내적 성격특성인 놀이성은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Barnett, 1990)으로서 놀이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의 놀이참여 행동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향후 관련 연구들이 더욱 축적된다면 변인 간의 경로를 밝히거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인 정서조절이나 어머니 관련 요인 등의 변인들의 상대적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깊은 이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아버지 관련 변인들 중 아버지의 놀이성과 자녀와 놀이에 참여하는 양과 질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놀이참여의 질에 있어서 자녀-아버지 간 놀이상호작용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다 객관적이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와 자녀의 놀이에서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성격특성인 놀이성과 적극적인 놀이참여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아버지의 놀이 참여를 위해서는 자녀와 놀이 시간의 확보가 필요함을 밝혀내, 적정 근로 시간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일기 시작한 일 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 정책 실현의 유지, 확대에 객관적인 증거로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 구체적인 놀이참여 및 놀이상호작용 방법 등을 교육하여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성, 김경은 (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4**(3), 19-35. doi:10.15284/kjhd.2017.24.3.19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doi:10.18023/kjece.2015.35.1.015
- 김기순 (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민 (2006). 놀이 유형별 아버지의 참여 수준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배울미 (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유아의 자기조절의 중재적 효과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2), 471-494.
- 김영희 (2013). 유아 및 어머니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3), 217-240.
- 김은화 (2011). 아버지와 영유아의 주말 놀이 공유 실태.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2**(2), 73-87.
- 김종석 (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애 (2015). 부모 놀이성과 자녀 놀이성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재, 최지현 (2016). 아버지의 놀이성 및 낙관성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에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5**(2), 221~235. doi:10.17643/KJCE.2016.25.2.11
- 단현국 (2011).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또래 유능성. **한국유아교육연구**, **13**(2), 5-33.
- 박주희, 이은혜 (2001).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박현숙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 김신영, 이수영 (201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버지 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6**(2), 271-294. doi:10.18023/kjece.2016.36.2.012
- 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김세현 (2011).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손승희, 이은혜 (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윤희 (2011). 부모의 놀이성 및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

-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라리, 김정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또래유능성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6**(1), 329-350.
- 여운재 (2017).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놀이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 (2013). 유아의 성 및 놀이성과 어머니의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 **한국영유아보육학**, **80**, 153-174.
- 원희영 (1997).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란희, 김선희 (2017).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38**(2), 67-79. doi:10.5723/kjcs.2017.38.2.67
- 윤상인 (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은 (2015). 아버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1993).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이미선 (2011).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 (200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의 발달적 결과: 단기종단연구. **아동학회지**, **22**(2), 65-76.
- 이은숙, 박형신 (2017).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4), 759-777. doi:10.18023/kjece.2017.37.4.031
- 이진희 (2011). 유아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또래유능성, 어머니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란 (2002). 유아의 놀이유형별 아버지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2017).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4).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완벽주의 성향과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2), 105-126. doi:10.18023/kjece.2014.34.2.005
- 정지나, 이영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 내적 표상의 매개 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7**(4), 65-80.
- 조은정, 박형신 (201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유능성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1), 27-48.

- 최미숙, 송순옥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최진주 (2004).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아버지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현, 이진숙 (2015). 어머니의 5요인 성격특성과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5), 173-188. doi:10.5723/KJCS.2015.36.5.173
- 황지현 (2012).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구조모형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4), 319-336.
- Belsky, J. A. (1980). Family analysis of parental influence on infant exploratory competence. In F. A. Pedersen (Ed.), *The father-infant relationship: Observational studies in a family setting* (pp. 87-110). New York: Praeger.
- Bowen, S. M., & Miller, B. C. (1980). Paternal attachment behavior as related to presence at delivery and preparenthood classes: A pilot study. *Nursing Research*, **29**(5), 307-311. doi:10.1097/00006199-198009000-00010
- Bozionelos, N., & Bozionelos, G. (1999). Playfulness: It's relationship with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4), 749-760. doi:10.1016/S0191-8869(98)00207-4
- Bruner, J. (1991). The narrative construction of reality. *Critical Inquiry*, **18**(1), 1-21. doi:10.1086/448619
- Csikszentmihalyi, M., & Nakamura, J. (1979). The Concept of Flow. In B. Sutton-Smith (Ed.), *Play and learning* (pp. 257-274). New York: Halsted Press.
- De Haan, A. D., Prinzie, P., & Dekovic, M. (2009). Mothers' and fathers' personality and parenting: The mediating role of sense of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695-1707. doi:10.1037/a0016121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Erlbaum.
- Ellis, S., Rogoff, B., & Cromer, C. C. (1981). Age segregation i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399-407. doi:10.1037/0012-1649.17.4.399
- Erikson, E. H. (1977). *Toys and reasons: Stages in the ritual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Norton.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1), 83-103. doi:10.2466/pr0.1992.71.1.83
- Ishii-Kuntz, M. (1994). Paternal involvement and perception toward fathers' roles: A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30-48. doi:10.1177/

019251394015001002

- Kostelnik, M., Whiren, A., Soderman, A., & Gregory, K. (2006).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5th ed)*. Clifton Park, NY: Thomson Delmar Learning.
-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Wiley.
- Lamb, M. E. (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Hoboken, NJ: Wiley.
- Lamb, M. E., Frodi, A. M., Frodi, M., & Hwang, C. P. (1982). Characteristic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wedish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5(1), 131- 141. doi:10.1177/016502548200500107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2), 219-224. doi:10.1080/00221325.1965.10533661
- McCay, L. O., & Keyes, D. W. (2001)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the inclusive primary classroom. *Childhood Education*, 78(2), 70-78, doi:10.1080/00094056.2002.10522707
- OECD. (2018).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Paris: OECD Publishing.
- Parke, R. (1981). *Fathe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MacDonald, K. B., Beitel, A., & Bhavnagri, N. (1988). The role of the family in the development of peer relationships. In R. D. Peters, & R. J. McMahon (Eds.), *Social learning systems approaches to marriage and the family* (pp.17-44). Philadelphia, PA: Brunner/Mazel.
- Rogers, S. J. (1988).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handicapped children's play: A review. *Journal of the Division for Early Childhood*, 12(2), 161-168. doi:10.1177/105381518801200207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doi:10.1006/drev.1996.0431
- Schaefer, C., & Greenberg, R. (1997). Measurement of playfulness: A neglected the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6(2), 21-31. doi:10.1037/h0089406
- Stevenson, M. B., Leavitt, L. A., Thompson, R. H., & Roach, M. A. (1988). A social relations model analysis of parent and chil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1-108. doi:10.1037/0012-1649.24.1.101
- Tauber, M. A. (1979). Sex differences in parent-child interaction styles during a free-play session. *Child Development*, 50(4), 981-988. doi:10.2307/1129323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1), 79-97. doi:10.1016/0273-2297(83)90010-2

논문투고: 18.10.15

수정원고접수: 18.11.15

최종게재결정: 18.12.03